

광주FC, '무등산 버팔로' 이한샘이 돌아왔다

8년만의 친정팀 복귀... 2016·2018년 K리그2 베스트11 수비수 선정
적극 압박·파워풀 수비 '버팔로' 애칭... 지난해 주장으로 수원 승격 견인

중앙 수비수 이한샘(31)이 '무등산 버팔로'로 돌아온다. 광주FC가 13일 수원FC의 승격을 이끈 수비수 이한샘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2012년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했던 이한샘의 8년 만의 친정 복귀다. 순천중앙초 출신인 이한샘은 올림픽대표팀을 거쳐 건국대 시절 대학선발로 활동했으며, 2012 선발 드래프트 1순위로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를 밟았다.

185cm·84kg의 강력한 피지컬을 지닌 이한샘은 탄탄한 대인마크와 함께 몸을 사리지 않는 저돌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데뷔 시즌부터 팀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데뷔 첫해 27경기를 뒀던 이한샘은 이 중 24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2골도 기록, 신인왕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한샘은 적극적인 압박과 파워풀한 수비에 '버팔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데뷔시즌 강력한 활약으로 눈길을 끈 이한샘은 2013년 경남을 거쳐 강원, 아산 경찰청, 수원FC에서 활약했다.

강원과 아산에서 뛰었던 2016년과 2018년에는 K리그2 베스트11 수비수 부문 주인공으로도 등극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거친 팀마다 주장과 부주장을 맡았던 이한샘은 지난 시즌 수원FC의 '캡틴'으로 19경기를 뛰며 팀의 승격을 이끌었다. K리그 통산 203경기 9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승부 조작 제안을 거부하고 신고를 해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이한샘은 당시 은퇴선수인 장학영으로부터 '9월 22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전 20분 안에 퇴장을 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구단에 알려 제안자 검거에 역할을 했다.

연맹은 "부정방지 교육 매뉴얼에 따라 모범적인 대처를 하여 좋은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K리그에서 경기 관련 부정행위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줬다"며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묵심 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 이한샘은 2021년 익숙한 친정으로 돌아와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한다.

이한샘은 "광주를 떠난 지 8년 만에 데뷔팀으로 돌아오게 됐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라며 "팀의 발전을 위해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주는 베테랑으로, 그라운드 안에서 처음 광주 유니폼을 입었던 신인의 자세로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이한샘은 꾸준한 실력뿐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단을 뒷받침해주는 리더같은 존재"라며 "이한샘의 투쟁심과 경험, 헌신이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메디컬테스트를 마친 이한샘은 곧바로 남해 캠프에 합류해 2021시즌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만나고 싶은 사람 호날두 BTS의 노래는 나의 힘”

손흥민, 소소한 일상 공개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29·토트넘)이 자신에게 딱 5분만 주어 진다면 누굴 만나고 싶냐는 물음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를 꼽았다.

13일(한국시간) 토트넘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의 '라스트 파이브'(The Last Five)를 통해서다.

'라스트 파이브'는 '5'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스타플레이어의 생각과 일상 등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콘텐츠다.

손흥민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 5장의 사진, 최근 받은 5개의 문자 메시지, 최근 올린 5개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최근 들은 5곡의 노래, 최근 통화한 5번의 전화 등 소소한 일상을 팬들과 공유했다.

손흥민은 '과거와 현재를 망라해 누구와도 보낼 수 있는 5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손흥민은 "너무 많아 답하기 어려운데"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축구와 관련한 것은 물론 축구 외적인 면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서 "다들 알다시피 호날두는 딴 세상 사람이라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손흥민이 최근 들은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저스틴 비버, 핑크 스웨츠 등의 곡이다.

손흥민은 그동안 자주 언급해왔던 K-팝과 BTS(방탄소년단)도 빠뜨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BTS의 노래는 힘을 주고, 한국 생각도 나게 한다. '다이너마이트'는 정말 좋다. 참 많이 들었다"면서 "내가 하도 BTS 얘기를 자주 해 엄청난 팬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모두가 BTS의 열렬한 팬"이라며 웃어 보였다. /연합뉴스

올 마스터스 골프는 직관

4월 8일 개막...관중 일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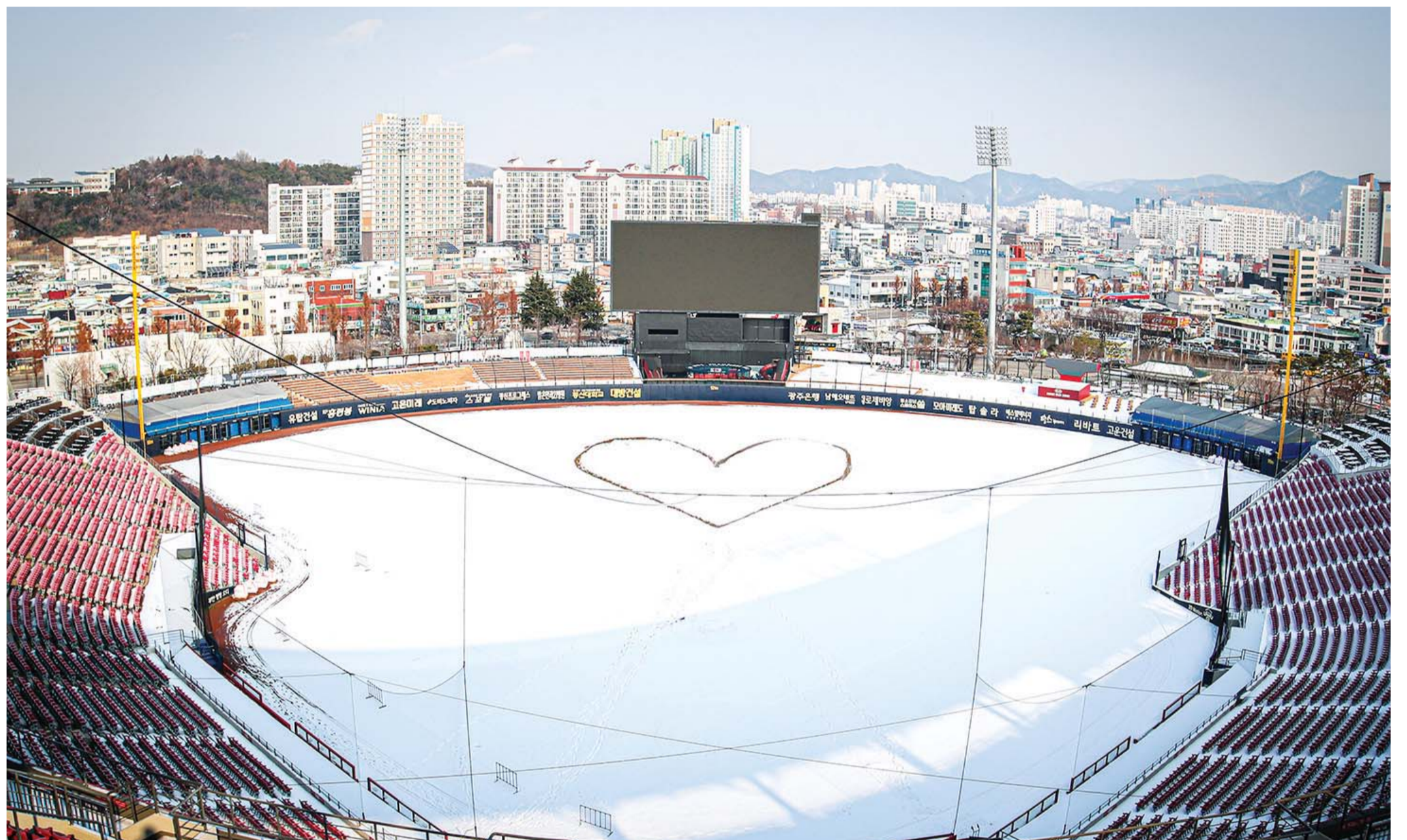
'명인 열전' 마스터스 골프 올해 대회에는 관중 일부 입장이 허용된다.

대회를 개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프레드 리틀리 회장은 13일(한국시간) "올해 4월 8일 개막하는 제85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는 제한된 수의 관중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4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마스터스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1월에 무관중 대회로 치러졌다. 마스터스가 4월이 아닌 때에 개최된 것은 1934년 3월 이후 작년이 86년 만이었다.

리틀리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기준은 2020년 11월에 열린 대회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4월에는 일부 관중을 초대할 가운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관중 입장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입장권 소지자(패트론) 모두를 초대하지 못하게 된 점은 실망스럽다"며 "초대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2022년 더 나은 환경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KIA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눈으로 덮인 챔피언스필드가 하얀 캔버스로 변신했다. KIA 타이거즈 홈팀 직원들이 팬들의 응원과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외야에 커다란 하트를 그려놓았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전남드래곤즈, 더 빠르고 노련해진다

'나이지리아 특급' 사무엘 '기대주' 서명원·골키퍼 김다솔 '고졸 루키' 최성진 영입
체력·스피드·전술 실행 능력 갖춰 전력구상 다양한 옵션 가능

전남드래곤즈가 '나이지리아 특급' 사무엘은 나마니(26)와 '기대주' 서명원(26)·최성진(19)으로 화력을 더했다. 12년 차 골키퍼 김다솔(32)을 영입해 뒷문도 강화했다.

전남은 13일 스웨덴 무대에서 활약한 외국인선수 사무엘을 영입했다.

원포워드와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는 사무엘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공간 침투가 뛰어나며 수비수와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탄탄한 체격을 갖췄다.

공격수치고 키가 작은 183cm의 키지만 탁월한 위치선정과 뛰어난 점프력, 헤더 스킬로 득점력이 좋고 특히 박스 안에서의 빠른 움직임이 눈에 띈다.

사무엘은 2018시즌 27경기에서 12득점을 하며 소속팀 AFC 에스킬스투나를 스웨덴 1부로 승격시켰고, 지난 시즌에도 28경기 13득점 2도움으로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사무엘은 "아시아에 온 게 처음이다. K리그에

서 뛰는 게 나에게 큰 도전이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환상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공격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기록해 팀이 K리그2로 승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전남은 차범근축구상 대상을 받은 기대주 서명원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서명원은 U-12부터 U-19까지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잉글랜드 포츠머스FC 유소년 팀에서도 뒀던 경험이 있다.

서명원은 당진 신평중, 신평고를 거쳐 대전에서 26경기 4득점 5도움을 기록하며 화려한 데뷔 시즌을 보냈다. 이후 울산, 강원, 부천 등에서 기회를 노렸지만 치열한 경쟁 속 잦은 부상 등으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차진 스트라이커와 원포워드가 주 포지션인 서명원은 폭발적인 스피드, 감각적인 슈팅,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앞세운 창의적인 플레이가 장점이다.

전남에서 부활을 노리는 서명원은 "전남을 보면서 팀 컬러가 좋다고 생각했다. 공격수로서 개인의 득점이나 도움도 중요하지만,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팀에 잘 융화되어 좋은 성과를 얻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년 차 골키퍼 김다솔도 전남에서 또 다른 전성기를 꿈꾼다.

2010년 포항을 통해 프로에 입단한 김다솔은 베테랑 신화용의 그늘에 가려 2014년까지 5년간 33경기 출전에 그쳤다.

기회를 찾아 대전, 인천으로 떠났지만 자리를



사무엘 서명원 김다솔 최성진

잡지 못한 김다솔은 2017시즌 여름 수원FC에 입단했다. 그리고 한 시즌 반 동안 37경기 36실점으로 '0점대 실점률'을 유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김다솔은 수원FC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수원 삼성으로 이적했지만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전남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다솔은 뛰어난 위치선정을 바탕으로 한 노련한 경기운영이 돋보인다. 볼 컨트롤과 패스가 좋아 빌드업에 능하며, 큰 키(188cm)를 활용한 공중볼 처리도 뛰어나다.

김다솔은 "팀이 승격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말했다.

전남은 우선지명을 통해 광양제철고 출신의 '루키' 최성진도 영입했다.

최성진은 전남드래곤즈 U12, U15, U18를 모두 거친 최전방 공격수다. 192cm의 장신으로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중앙 수비수도 소화 가능해 전력 구성에 다양한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진은 지난해 연습경기를 통해 몇 차례 테스트를 받았고, 전경준 감독의 눈길을 끌었다.

최성진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프로 입단이 현실이 되어 기쁘다. 막내로서 열심히 하고, 팀에 잘 융화되어 팀이 승격을 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